

이 호 진

1981년 5월에 실시된 정기건강진단을 받은 H 은행 근무자 2,461명의 개인건강기록부에서 고혈압으로 나타난 자 216명과 고혈압으로 나타나지 않은 자중 무작위로 추출한 284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에서는 146명(67.6%), 후자에서는 222명(78.2%)으로부터 건강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조사의 응답을 얻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고혈압유병율은 약 8.8%였다.
- 2) 고혈압에 이환된 자는 주섭취음식이 동물성지방질식품 및 생선류였으며, 비만도와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과 관계가 있었고, 연령, 흡연량, 음주량, 취미생활과 염분섭취정도와는 관계가 없었다.
- 3) 검진결과 고혈압으로 나타난 자 중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자는 16.4%였다.
- 4) 고혈압이 발견된 경로는 주로 정기건강진단 때(80.8%)였다.
- 5) 두통과 피로감은 30세~39세에 고혈압이 발견된 군과 5년이하의 유병기간을 가진 군에서 주로 호소되었고, 어지러움 및 가슴 답답함과 시력장애는 40세 이상에 고혈압이 발견된 군과 10년이상의 유병기간을 가진 군에서 주로 호소되었다.
- 6) 고혈압에 이환된 자중 약을 복용하지 않는 자는 82.8%이었다.
- 7) 현재 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방법은 자가치료방법(27.0%), 의무실이용(15.6%), 병원이용(12.3%), 약국이용(4.1%), 한의원이용(2.5%)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를 안하고 있는 자는 38.5%이었다.
- 8) 고혈압의 건강관리를 한 후 혈압의 차이가 있다가 41.0%로 나타났다.
- 9) 고혈압이환자중 의무실이용자는 40명중 32.8%였으며, 그들중 주로 혈압측정에만 이용하는 경우가 의무실 이용자중 47.5%, 혈압측정 및 상담이 30.0%, 상담이 10.0%, 혈압측정, 상담 및 투약이 7.5%, 혈압측정, 상담, 처방, 투약이 5.0%이었다.
- 10) 의무실을 이용하지 않는 자는 고혈압에 이환된 자의 67.2%로써 그 이유별 분포는 지점에 근무하므로 거리가 멀어서가 50.0%,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서 및 기타가 30.5%, 시설이 미비하여서가 12.2%순이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근무자의 고혈압 건강관리는 철저히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지역 산업근로자들의 정신건강상태 및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조 춘 환

본 연구는 1981년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구로공단 내의 일부 근로자들 195명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또한 현재 정신건강에 장애를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행복된 삶의 영위, 더 나아가서는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였으며, 동시에 산업근로자들의 위기조정,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내의 간호원의 역할 강화 및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하였다. 도구로서는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키 위해 C. M. I. (Cornell Medical Index)를 이용하였고, 현재 정신건강에 장애를 미치는 주요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전망 등을 알기 위해 연구자가 임의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분석 내용에 따라 백분율, T-검증, 변량분석, X^2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

- (1) 성별분포는 여자가 75.4%, 남자가 24.6%로 여자가 많았다.
- (2) 교육정도는 고등학교와 그 이상이 66.6%로 이들의 학력은 높았다.
- (3) 근무경력은 4년이상-5년까지의 군이 가장 많았다(26.2%).
- (4) 과거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군이 별로 없었거나 전혀 없었다는 군(8.7%)보다 많았고(56.4%), 현재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군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는 군(17.9%)보다 많았다(46.7%).
- (5) 고민에 대하여 상담을 많이 했었다는 군(18.0%)보다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군(48.2%)이 훨씬 높았는데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군의 이유로운 "혼자 해결하고 싶어서"(45.5%)가 가장 높았다.

상담대상자로는 친한 친구(51.9%)가 가장 높고 다음이 부모(17.9%)였으며, 상담을 했을 경우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저 보통이거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모두 67.3%)을 나타내었다.

2. 특성별 C. M. I. 비교

(1) 모든 항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호소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적응상태, 우울상태, 긴장상태에서 더 높은 호소수를 나타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예민함을 알 수 있다.

(2) 연령별 비교에서도 연령별로 매우 차이가 있음($p < 0.001$)을 나타내었는데, 모든 항목에서 17-25세군이 26-45세군 보다 호소수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적응상태, 우울상태, 신경과민상태, 긴장상태에서 더 높게 나타나 나이가 적을수록 정서적 불안

정을 보이고 있다.

(3) 결혼유무별에서도 기혼군과 미혼군 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p < 0.05$)을 나타내었는데, 모든 항목에서 미혼인 경우 기혼인 경우보다 호소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적응상태, 우울상태, 긴장상태에서 높게 나타나 미혼인 경우에 상담의 필요성이 더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4) 주거상태별 비교에서도 가족과 함께 기거하는 군과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군간에 매우 차이가 있음($p < 0.001$)을 보여 주었는데, 모든 항목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서 보다 호소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적응상태, 우울상태, 불안상태, 신경과민상태, 분노, 긴장상태 등 모두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5) 교육정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정도에 따라 매우 차이가 있음($p < 0.05$)을 나타내었다. 특히 적응상태, 우울상태, 긴장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호소수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근무기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우울상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차이가 없음($p < 0.05$)을 나타내었고, 근무기간이 적어짐에 따라 우울상태가 높고 비교적 모든 호소수가 높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3. 문제해결에 대한 전망

(1) 직장내에 상담자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대상자의 71.8%가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2) 간호원에 대한 호응도에서는 그저그렇다(52.3%)고 반응한 군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비교적 좋다고 대답한 군(44.3%)이었으며, 나쁘다고 대답한 군은 3.6%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간호원에 대한 호응도가 만족스럽게 높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높았으며 연령이 낮거나 근무기간이 적을수록 더욱 많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간호원의 역할인식 및 확대가 필요하다.

제언 ;

(1) 산업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경영자들의 인식 및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2) 지역사회정신건강을 위해 위기조정자로서의 간호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고, 간호원의 역할에 대하여 산업근로자들의 인식 및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3) 산업장내에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상담 및 지도를 위한 전문인의 상주가 절실히 필요하다.

(4) 산업근로자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좀 더 과학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및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